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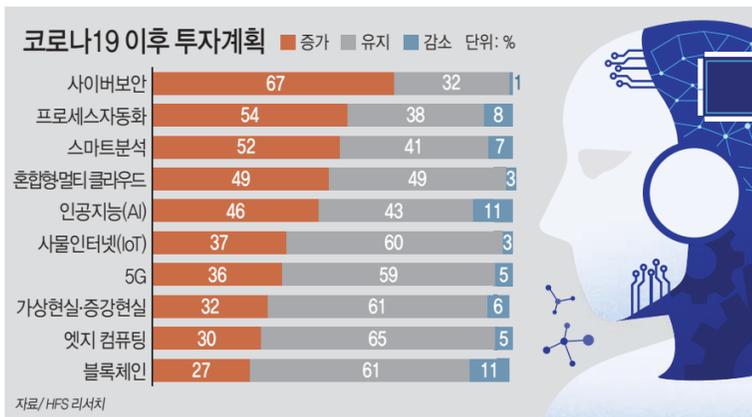
코로나發 실직, 일시적?... “상당수 영구 실업자될 것”

한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이슈’
22주간 美 실업수당 신청자 6천만
OECD 회원국 4월 실업률 8.4%
여성 9.1%, 남성 7.9%로 집계
“코로나 종식되도 경기침체 지속
영구적 실직자 31~56% 추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을 잃은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도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 연구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의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폐쇄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됐으며,



국내 노동시장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에서는 실직 사태가 본격화된 3월 셋째 주 이후 신규 실업수당 누적 신청자 수가 22주간 5980만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이 2009년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월에는 감소폭이 36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의 4월 실업률은 8.4%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급등했다. 한국의 6월 실업률은 4.3%로 1999년 이후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타격이 컸다.

OECD 4월 실업률은 여성 9.1%, 남성 7.9%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2~4월 코로나19로 인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여성(62만명)이 남성(40만명)을 앞섰다.

영국의 24세 이하 근로자 중 24%가

일시휴직 중이며, 9%가 실직했다. 한국 역시 6월 20대 고용률은 1999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인 55.4%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 요원해졌고, 종식 이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급증한 실직자 수는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4월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들 중 78%가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응답한 반면 다른 연구(Barrero et al.)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인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확진자 발생으로 제조업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코로나19로 기업은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리스크를 인식하게 됐다”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

고 분석했다.

실제 직원 확진으로 LG디스플레이 경북 구미공장에서 카메라모듈 생산라인이 중단됐으며, 삼성전자 미국 생활가전 공장도 인드스마트폰 생산라인도 가동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대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주 효자몰(2월 21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2월 28일), 롯데백화점 본점(5월 9일), 현대백화점 중동점(5월 10일)은 일시 폐쇄조치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적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택근무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학교급식용 농산물 유통 중단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고3제외) 학교가 20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유통도 중단되고 있는 7일 서울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입하장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삼성, 하반기 신입채용 14일까지 접수

계열사, 10~11월 GSAT 실시

삼성 계열사들이 2020년 하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7일 공고했다.

이날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는 삼성 계열사들의 하반기 채용 공고가 게재됐다.

공고를 올린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전자판매 ▲삼성웰스토리 ▲삼성서울병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원 ▲제일기획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이다.

이들 계열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10월~11월 중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면접을 진행하고 12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도 GSAT는 상반기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삼성

은 앞으로도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온라인 GSAT를 전격 도입했다.

상반기 진행된 온라인 GSAT는 시험 감독관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위한 준비를 일일이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절차도 충분히 준비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삼성은 하반기 채용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약속한 총 4만명 신규 채용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해 3년(2018~2020년) 동안 총 180조 원 규모의 투자와 4만명 신규 채용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채용 규모는 이미 지난해까지 3개년 목표치인 약 4만명의 80% 이상에 달했으며, 올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재용 기자 juk@

고용부, 실업급여 지급액 4개월째 1조 돌파

‘8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9% 증가 등 개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악화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째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커지는 등 지난달 일부 고용 지표가 개선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9월 다시 악화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전년 동월(7256억원)보다 3718억원(51.2%)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7월(1조1885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5월부터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47만3000명)보



다 23만2000명(49.0%) 늘었다. 다만 7월(73만1000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9만명)는 전년 11월(8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코로

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 15만 6000명으로 증가했지만, 4월부터 감소 추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1만 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6만2000명(1.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50만명대의 고공 행진을 보인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5월에는 15만 5000명으로 떨어졌지만, 6월(18만4000명), 7월(18만6000명)에 이어 반등하고 있다.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서비스업은 96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4000명(3.4%)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가 13만3000명, 보건복지업에서 10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도 지난달 35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3000명(1.8%) 줄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한용수 기자 hys@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전세값 상승

>> 1번 ‘서울 전세난 확산...’서 계속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 푸르지오(전용면적 85㎡)는 8월 전월 대비 1억5000만원이 오른 6억원에 계약됐다.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전용면적 85㎡)도 8월 5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

는 7월 3억500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강동(0.26%) ▲송파(0.20%) ▲성북(0.18%) ▲노원(0.16%) ▲양천(0.15%) ▲관악(0.12%) ▲도봉(0.12%) ▲동대문(0.12%) ▲중구(0.12%) 순으로 올랐다.

아파트 거래시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

기 2.5단계에 돌입하면서 감소세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월에 131건으로 7월(363건)보다 급격하게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거래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매매가와 전세값 상승은 가을 이사철이 진행되는 동안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